

## 미래디스플레이산업 정책포럼 열어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뉴 IT 산업의 선도역할 수행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디스플레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등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디스플레이산업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개별수행 하던 디스플레이 분야 R&D, 기반조성, 지역혁신 등 국가지원사업들 간의 긴밀한 연계방안 모색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추진과제의 상호공개검증을 통한 자율적 평가시스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은 1995년 LCD양산 시작 이후 10년만에 LCD, PDP, OLED등 디스플레이 전분야에 걸쳐 세계 1위의 생산국으로 성장하였으며 2007년도 수출 385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38% 등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수출 주력기간산업으로 급부상하였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같이 성장한 배경에는 불황기인 1998년 일본이 투자를 주저할 때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이 있었다. 디스플레이와 제조공정이 유사한 반도체(메모리) 산업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그 요인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그동안 디스플레이산업은 외적성장애 주력하여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이제는 부품·소재 및 장비 등 후방산업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R&D에 내실을 기하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OLED, Flexible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국방성 지원으로 Flexible Display Center('04.2) 설립,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은 필립스, 노키아 등이 참여하는 FlexiDis Project 컨소시엄('04.11) 구성, 전자종이 및 유기 반도체 소재를 개발 중이다. 일본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미래 유망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정책을 비밀리에 진행(經産省은 업계 공동의 컨소시엄인 「퓨처비전(Future Vision)」결성하고, 153억엔의 보조금 지원)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기업 CTO, 연구소장, 중소기업 CEO, 연구개발자 등 산학연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하는 미래디스플레이 산업정책포럼 등을 8월 말 개최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정부에서 지원한 총 149개 세부과제의 연구성과 발표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등 상호연계가 부족하였던 과제 기술 교류가 적극 전개될 것이다. 기초연설로 미래디스플레이 기술과 해결과제라는 주제로, Global 환경 변화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변화에 따른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각각의 동향과 해결과제를 살펴본 후,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발표내용은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 동향과 부품 소재 국산화 현황, Flexible 디스플레이 현황 및 전망,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생활속의 디스플레이, 정부의 디스플레이R&D 정책방향 등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디스플레이 - 지속성장 전략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향후 미래디스플레이 핵심원천기술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대기업간, 대중소기업간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및 공동R&D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 워크숍을 통하여 논의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방안도 향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